

〈일반논문〉

## 내재화된, 그러나 다가갈 수 없는 서양 :\*

### 일기를 통해 본 청년기 윤치호의 서양 인식

김 용 신 \*\*

〈목차〉

- I. 서론
- II. 서구의 확장 원리와 내재화된 배타성
- III. 서구적 표준의 내면화
- IV. 표준으로부터의 배제
- V. 국가주의와 동양주의 사이에서 전환기 지식인의 선택
- VI. 결론

[국문초록]

본 논문은 ‘국가주의’와 ‘동양주의’가 경합하던 전환기 지식인이었던 윤치호가 ‘국가주의’보다는 인종주의에 근거한 ‘동양주의’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추적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윤치호가 1895년 조선에 영구 귀국하기 이전까지의 일기를 주요 분석 대상으로 한다. 이 기간은 윤치호가 17세에서 31세까지 지냈던 기간으로 한 인간의 가치관, 세계관이 정립되는 청년기 시기이다. 국내에서의 본격적인 활동 이전에 윤치호는 어떠한 준거점을 가지고 서양 그리고 세계를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이후 윤치호가 ‘국가주의’ 대신 일본 주도의

\* 이 논문은 인하대학교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인하대학교 중국학과 조교수

‘동양주의’에 경도된 내재적 원인을 추적해본다. 윤치호가 ‘국가주의’ 대신 ‘동양주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본 논문은 윤치호 내부에 내재된 서구에 주목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특수성으로서가 아닌 보편성으로 편재(偏在)하는 서구가 윤치호의 세계 인식의 준거점이었으나, 서구의 근대 속에 내재되어 있는 배타성은 조선인 윤치호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았기에 서구의 대안으로서 ‘동양주의’를 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 주제어

윤치호, 일기, 국가주의, 동양주의, 서구

---

슬프다. 한 마을이 단결하여 우리 집의 화를 구해준다면 이를 추구함이 옳거니와 오늘날의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여 한 마을의 단결 여부가 우리집의 흥망에 무관하거늘 헛되이 악독한 도적의 뒤를 따라서 이를 공의(共議)하면 어찌 노예의 어리석음이 아니리오.

이로 미루어보면, 한국인이 이 열국 경쟁시대에 국가주의를 제창하지 않고 동양주의를 꿈꾸면 이는 오늘날 시대의 인물로 미래 다른 별나라 세계와의 경쟁을 근심하는 자와 다름없으며, 또한 이 비경(悲境) 중에서 속박의 굴레에서 벗어날 도리는 생각지 않고 동양주의를 기대면 이것은 폴란드인이 서양주의를 말하는 것과 다름없니라.

하물며 국가는 주인이요 동양주의는 손님이거늘, 오늘날 동양주의 제창자를 살피보건대 동양이 주인 되고 국가가 손님이 되어 나라의 흥망은 하늘 밖에 놔두고 오직 동양을 이같이 지키려 하니, 슬프다. 어찌 그 우미(愚迷)함이 여기에 이르렀는가. 그런즉 한국이 영구히 망하며 한족(韓族)이 영구히 멸망하여도 다만 이 국토가 황인종에게만 귀속되면 이를 낙관

(樂觀)이라 함이 옳을까. 아, 옳지 않은 것이다.

혹자는 또 일컫되, 저 동양주의를 외치는 자도 진실로 동양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 주의를 이용하여 국가를 구하고자 함이라 하나, 우리가 보건대 한국인이 동양주의를 이용하여 국가를 구하는 자는 없고 외국인이 동양주의를 이용하여 국혼(國魂)을 찬탈하는 자가 있으니 경계하며 삼갈 것이다.<sup>1)</sup>

## I. 서론

1865년에 태어나 1945년에 세상을 떠난 윤치호는 동아시아 전통 질서가 서구식 근대 질서로 전환되던 시기를 살았던 지식인이다. 그는 중국을 중심으로 문명과 야만을 동심원적을 분류하던 중화질서가 서구의 선진과 비서구의 후진으로 바뀌고, “자타관계가 ‘예’와 ‘덕화’에 기초한 타자의 포용에서 ‘권력’과 ‘투쟁’에 의존한 타자의 차별로 바뀌는”<sup>2)</sup> 장면을 직접 목도했다. 그가 살았던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의 동아시아는 두 개의 서로 다른 표준 간 갈등과 전환의 시대였다. 양립 불가능한 두 개의 표준은 상호 인식의 혼란을 가져왔고, 이러한 혼란스러움은 루스벨트(Theodore Roosevelt) 대통령 시기 주중 대사를 역임했던 윌리엄 로크힐(William Rockhill)의 기록에 생생하게 남아있다.

1) 신채호, 「동양주의에 대한 비평」, 『동아시아인의 '동양' 인식: 19-20세기』(최원식, 백영서 엮음), 문학과지성사, 1997, 219-220쪽. 이 글은 1910년 옥중에서 씌어진 것으로 漢文 원본은 1979년 발굴되었다.

2) 장인성, 「'인종'과 '민족'의 사이: 동아시아연대론의 지역적 정체성과 '인종」, 『국제정치논총』 40, 한국국제정치학회, 2000, 118쪽.

강화도 조약 이전 조선과 중국의 관계의 본질은 서구 국가들에게는 이해되기 힘든 퍼즐과 같았다. 그들은 조선은 “중국의 속국(vassal)이자 조공국(tributary state)이지만, 정부, 종교, 외국과의 교섭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독립”되었다고 들었는데, 절대적인 종속과 완벽한 독립이라는 우리의 사고방식에서는 양립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Rockhill 1970, 1)<sup>3)</sup>

윤치호는 중화질서와 새로운 국제질서 간의 경합 속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고,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제한된 선택지 가운데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운명이었다. 윤치호의 선택 중 주목해볼 만한 것은 그의 충성심(loyalty)의 향방이었다. 근대 국가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가능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인종, 종교, 지역 등 다양한 곳에 분산되어 있는 충성심의 대상을 국가에 독점적으로 귀속시킨 형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sup>4)</sup> 그렇다면 전환기의 윤치호가 국가가 아닌 일본에 의해 주도된 인종주의에 근거한 “동양주의”에 본인의 충정을 다한 이유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sup>5)</sup> 본 논문은 “국가주의”와 “동양주의”의 경합 속에서 윤치호가 전자가 아닌

3) 원문은 다음과 같다. “Prior to the Kang-hua treaty the nature of Korea’s relation to China was a puzzle to Western nations. They were told, at one and the same time, that Korea, ‘though a vassal and tributary state of China, was entirely independent as far as her government, religion, and intercourse with foreign states were concerned,’ a condition of things hardly compatible with our ideas of either absolute dependence or complete independence.”

4) 근대 국가(modern state)를 한 마디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근대 국가에 대한 포괄적 논의에 대해서는 Christopher Morris, *An Essay on the Modern Stat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을 참고할 것.

5) “국가주의”와 “동양주의”라는 표현은 앞에서 인용한 신채호의 표현을 빌려온 것이다. 물론 윤치호가 초기부터 “동양주의”에 강력하게 경도되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1905년 ‘105 사건’으로 인한 옥고를 계기로 그가 친일로 전향하였건, 1930년대 말 회색분자에서 적극적인 친일로 돌아섰건 간에 젊은 시절 윤치호가 남긴 기록에서 ‘국가주의’적인 발상은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

후자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추적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윤치호가 1895년 조선에 영구 귀국하기 이전까지의 일기를 주 연구 대상으로 한다. 이 기간은 윤치호가 17세에서 31세까지였던 청년기로 한 인간의 가치관, 세계관이 정립되는 중요한 시기이다. 국내에서의 본격적인 활동 이전에 윤치호는 어떠한 준거점을 가지고 세계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살펴봄으로써, 이후 윤치호가 “국가주의” 대신 일본 주도의 “동양주의”에 경도된 내재적 원인을 추적해보려는 것이다.

윤치호가 “국가주의” 대신 “동양주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본 논문은 윤치호 내부에 내재된 서구에 주목하고자 한다. 특수성으로서가 아닌 보편성으로 편재(偏在)하는 서구는 윤치호의 세계 인식의 준거점이었으나, 서구의 근대 속에 내재되어 있는 배타성은 조선인 윤치호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았기에 서구의 대안으로서 “동양주의”를 택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것이다. 윤치호의 일기를 토대로 윤치호가 세상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준거점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살펴봄으로서 그의 귀국 후의 모습을 유추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될 것이다. II장에서는 윤치호에게 보편으로 인식된 서구의 전세계적 확장 원리와 서구의 팽창 과정에 내재된 배타성을 살펴본다. III장에서는 언어, 종교, 질서의 작동 원리에 대한 윤치호의 인식 변화를 살펴봄으로서 윤치호 내부에서 일어나는 서구적 표준의 내면화 작업을 살펴본다. IV장에서는 인종주의로 대표되는 서구 자체의 배타성과 이에 대한 윤치호의 대응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V장에서는 “국가주의”와 “동양주의”에서 후자를 선택한 윤치호를 비슷한 시기 전환기 지식이었던 루쉰(魯迅)과 비교한다.

## II. 서구의 확장 원리와 내재화된 배타성

근대 이전의 세계는 기독교 문명권, 유교 문명권, 이슬람 문명권 등으로 구분되어 각자 고유의 문명관을 지니고 공존하였다. 그러나 산업혁명으로 추동된 시간 및 공간적 거리의 축소는 서구의 기독교 문명권이 전세계로 팽창할 수 있게 해주었다. 비서구 국가에 대한 식민화를 기반으로 한 서구 문명의 제국주의적 팽창을 통해 서구 국가들은 스스로의 기준이 전세계적인 문명의 표준임을 주장했다. 서구 문명의 비서구 국가에 대한 확장은 평화로운 과정이었다기보다는 폭력적인 과정이었다. 30년 전쟁을 종결하는 1649년 웨스트팔리아 조약(혹은 베스트팔렌 조약, Westfälischer Friede)을 기점으로 서구 국가들은 정치적·종교적 지배에 기반을 둔 수직적인 세계(*universitas*)에서, 수평적인 관계의 주권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새로운 질서(*societas*)로 전환되었다.<sup>6)</sup> 웨스트팔리아 조약은 “왕은 자신의 영내에서 황제(*rexest imperator in regno suo*)”라는 것과 “한 지역의 종교는 그 지역 통치자의 종교를 따른다(*cujus regio, ejus, religio*)”는 두 가지 원칙의 기반 위에 형성되었다. 첫 번째 원칙을 통해 영내에서 군주 주권의 최고성과 배타성을 확정했고, 두 번째 원칙을 통해 내정 불간섭 원칙을 확고히 했다. 군주 주권의 최고성과 배타성, 그리고 내정 불간섭 원칙을 통해 종교적인 이유를 빌미로 자의적으로 행해졌던 교황에 의한 개별 주권 국가에 대한 수직적인 간섭 혹은 개입을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

웨스트팔리아 조약을 통해 유럽 각국들은 제국, 왕조, 종파가 아닌 국가들 간의 주권 영역 인정을 통한 세력균형 질서로 전환되었다.<sup>7)</sup> 그러

6) Robert Jackson, “Sovereignty in world politics: a glance at the conceptual and historical landscape,” *Political Studies*, Vol. 47, No. 3, 1999, p. 441.

7) 헨리 키신저, 『헨리 키신저의 세계 질서』, 민음사, 2016.

나 유럽 내의 사정과는 상반되게 서구 국가들은 외부 세계에 대한 제국주의적 팽창을 통해 유럽 내의 경제적 번영과 정치적 평화를 도모했다. 유럽 국가들 간에는 상호 주권 존중에 의한 국제 사회(*societas*)가 등장했지만, 유럽 외부로는 과거 로마 제국이 외부로 팽창할 때 남용한 무주지 선점(occupation of *terra nullis*), 할양(*concession*), 관습에 의한 권리 행사(*prescription*), 계승(*inheritance*), 융합(*accretion*), 정복(*conquest*) 등의 원칙과 관습을 일방적으로 적용하였다.<sup>8)</sup> 결국 유럽에서의 세력균형을 통한 평화와 비유럽지역에 대한 폭력적이고 배타적인 식민지적 팽창은 동시 발생적인 사건이었다. 영국은 서구 선진국의 이름으로 미개한 인종들을 교화하는 것을 “백인의 짐”(the Whiteman’s burden)이라며 숭고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정당화했다.<sup>9)</sup> 그러나 영국의 선진(先進) 역시 식민화 과정에서 정교화된 것으로, 영국의 영문학 커리큘럼은 인도 및 아시아, 아프리카에 파견할 영국인 관리자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과정을 통해 확립되었다.<sup>10)</sup> 서구의 팽창 과정은 유럽 질서를 중심으로 한 폭력적인 팽창 과정이었기에 유럽 이외의 것을 용납할 수 없는 배타성을 지닐 수밖에 없었다.

서구의 제국주의적 팽창원리는 서구 국가들로 구성된 국제 사회와 침략과 수탈의 대상인 타자화된 야만의 이중적인 구분법에 기초하여 작동했다. 결국 서구적인 것과 비서구적인 것은 수평적으로 상호 양립할 수 있는 존재라기보다, 수직적으로 위계화된 구조 속에 배치되었다. 위계의 정점을 점하고 있는 서구는 좋은 것, 선진적인 것, 보편적인 위치를 대표했고, 위계 구조의 아래쪽에 위치할 수밖에 없는 비서구(非西區, non-West)는

8) 김용신, 『臺灣 주권 문제의 역사적 기원』, 『中國學報』 91, 韓國中國學會, 2020, 330 ~ 331쪽.

9) 『정글북』의 동화 작가인 영국의 키플링(Joseph Rudyard Kipling)은 1899년 “백인의 짐”(The Whiteman’s burden)이라는 시를 발표했다.

10) Edward W. Said, 『오리엔탈리즘』, 교보문고, 2015; Robert Young, *Postcolonialism: An Historical Introduction*, Blackwell Publishing, 2001.

후진적인 것, 서구적인 것을 결핍한 존재로 대체되거나 점령되어야 할 매우 특수하면서 소멸되어야 할 대상으로 규명되었다.<sup>11)</sup> 서구의 보편성과 선진은 결국 서구의 타자적 객체인 비서구의 특수성과 후진의 기초에서만 존재할 수 있었다. 문명의 수직적 위계의 상층을 점한 서구는 서구 문명을 구성한 인종, 종교, 언어 등과 같은 특수한 구성 요소들에조차 선진과 보편의 의미를 부여하였다. 결국 유럽중심주의는 서구의 문명적 특성에 보편성을 독점적으로 부여하였기에, 필연적으로 비서구적인 요소들에 대한 배타성을 내포할 수밖에 없었다.

식민주의의 위계적 질서는 국가 간 혹은 문명 간 구조적인 수준에서만 존재하지 않고, 식민지와 피식민지 상황에 위치한 모든 존재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조지 오웰의 소설은 제국주의가 식민지에 배치된 점령자들에게 조차 얼마나 많은 상처를 남겼는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sup>12)</sup> 점령자들에게마저 잔인했던 서구 제국주의의 팽창이 서구에 의해 타자화된 대상들이었던 식민지 백성들에게 남긴 상처는 더욱 깊고 고질적이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서구적 보편에서 배제된 자들의 상처는 매우 광범위하고 일상적인 현상이었음에도 쉽게 대표될 수 없었고 수많은 개인들의 특수한 상처로 남아있었다. 프랑스 식민지였던 알제리에서 정신과 의사로 일했던 프란츠 파농이 『검은 피부, 하얀 가면』이라는 책을 쓰게 된 것도 환자들의 특수하고 개인적인 병리적인 현상들이 배타성을 기반으로 한 서구 식민지

11) 보편을 독점하고자 하는 서구를 해체하고자 하는 역사학적 시도로는, 디페시 차 크라바르티, 『유럽을 지방화하기』, 그린비, 2014.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유럽중심주의적 접근에 대한 비판으로는, Sankaran Krishna, “China is China, Not the Non-West: David Kang, Eurocentrism, and Global Politics”,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Vol. 77, No. 1, 2017, pp. 93~109.

12) 점령자의 입장에서 제국주의의 개인적 경험을 소설로 서술한 작품으로는 George Orwell, Shooting an Elephant, <https://www.orwellfoundation.com/the-orwell-foundation/orwell/essays-and-other-works/shooting-an-elephant/>

지배 상황에 기인하였음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sup>13)</sup>

프란츠 파농이 식민지 알제리인들의 상황을 정신 상담을 통한 정신분석(psychoanalysis)을 통해 알게 되었던 것처럼, 윤치호 개인의 일기는 파농의 작업과 유사한 정신분석을 가능케 한다. 물론 윤치호는 파농의 정신분석 대상이었던 식민지 알제리의 피압박 계층도 아니었고, 서벌턴 연구에서 레프리젠테이션(representation)하려고 했던 식민지 시대 인도 농민이나 순장에 의해 희생당하는 인도 여성들처럼 그 스스로를 대표할 수 없었던 사람은 아니었다.<sup>14)</sup> 오히려 그는 조선의 최고 엘리트였고, 평생에 걸친 일기 작성을 통해 스스로를 적극적으로 레프리젠테이션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 역시 식민지적 구조 속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개인이었음 감안하여, 일기를 통한 대안적인 방법의 정신분석을 시도한다. 본 연구는 윤치호가 서양과 어떻게 조우하고, 서양을 인식하고 표상하려고 했는지 청년기 윤치호의 일기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윤치호의 사상적 행적의 추이를 추적하는 데 있지 않고, 윤치호가 서양을 인식했던 논리적 구조를 재구성하는 데 있다. 전자의 연구 목적을 위해서는 윤치호 일기 이외의 다양한 사료를 통해 윤치호 행적에 대한 실증적 검토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서벌턴 연구나 후기 식민주의 연구의 방법론을 이용해 윤치호의 내면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분석을 목표로 하기에, 윤치호 일기는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에 매우 적합한 사료라고 할 수 있다.<sup>15)</sup>

13) 피점령자가 일상적으로 느끼는 식민상황과 정신 상태에 대해서는 프란츠 파농, 노서경 옮김, 『검은 피부, 하얀 가면』, 문학동네, 2014를 참고할 것.

14) 로절린드 C. 모리스, 가야트리 차크라보르티 스피박, 파르타 차테르지, 리투 비를라, 드루실라 코넬, 라제스와리 순데르 라잔, 압둘 R. 잔모하메드, 미셸 바렛, 팽 치아, 진 프랑코 지음, 태혜숙 역,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 서발턴 개념의 역사에 관한 성찰들』, 그린비, 2013.

15) 윤치호 일기는 다양한 형태로 출간되었다. 윤치호, 송병기역, 『국역 윤치호 일기 1,

### Ⅲ. 서구적 표준의 내면화

20대 초반의 윤치호에게 있어 중화질서와 영미 근대 국제질서 간의 경합은 그리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지 않았던 듯하다. 1884년 1월 30일 윤치호는 일기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대화가 조선이 만이(蠻夷)나, 아니냐 하는 데까지 미치게 되었다. 일재가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야만을 면한 지가 오래되었다”고 하였다. 내가 웃으면서 말하기를, “대저 야만과 개화의 구별은 인의(仁義)와 잔혹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대저 야만이라고 말하는 것은 서로 죽이고 잡아먹는 등 잔혹하고 어질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나라는 법을 만들어 백성을 얹어매어 살육하고 도해하고 있는데, 살인하는 데 있어 몽둥이로 하는 것과 칼로 하는 것에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였다.(1884/1/20)

윤치호와 일재는 공히 ‘야만’을 얘기하고 있지만, 두 사람의 ‘문명’과 ‘야만’은 이미 서로 다른 맥락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일재의 ‘야만’이 유교의 윤리 도덕이 행해지지 못하는 교화의 대상을 의미하였다면, 윤치호의 ‘야만’은 진보<sup>16)</sup>의 구현 상태인 ‘문명’의 반대로서 ‘야만’을 의미하고 있

---

2], 연세대 출판부, 2004, 2005.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한국사료총서 제19집으로 총 12권의 일기 및 서한집을 출간했고, 총 10권의 『국역 윤치호 영문일기』를 출간했다. 또한 김상태, 『윤치호 일기(1916-1943)』, 역사비평사, 2001은 50대 이후 윤치호 일기를 발췌 번역했다. 본 논문에서는 일기의 출처 대신 일기 작성의 (연도/월/일)을 표기한다.

16) ‘進步’는 본래 ‘걸음을 앞으로 내딛는다’는 뜻이었으나, 명치시대에 영어 advancement, progress의 영향을 받아, ‘사물이 文明開化 쪽으로 나아간다’는 뜻으로 바뀌었다. ‘진보’는 의미상의 개신을 겪은 신생한자어로서, 개화기 국어단어로 쓰인

는 것이다. 결국 두 사람은 서로 다른 표준을 근거로 문명과 야만의 서열을 논하고 있는 바, 문명과 야만이라는 기표(記標, significant)와 기의(記意, signifie) 사이의 의미작용(意味作用, signification)은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그렇다면 윤치호는 일제가 대변하고 있는 유교적 전통 질서가 아닌 서구의 근대적 표준을 어떻게 내재화할 수 있었을까? 본 장에서는 윤치호가 서구적 언어, 종교, 그리고 국제질서의 작동원리를 어떤 방식으로 내재화했는지 살펴본다.

## 1. 영어

중화질서의 주변부로 인식되었던 일본에서의 유학 경험은 중화질서가 말하는 문명과 야만의 허망함을 윤치호로 하여금 몸소 체험하게 하였다(1884/7/22). 윤치호는 “영어를 배우다니, 그것은 國禁을犯하는 것이니 절대로 안 될 일이다”라는 흥영식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윤중의 권유를 받아 영어 공부를 하기로 마음먹는다.<sup>17)</sup> 1882년 봄에 동경대학 철학교수의 부인 리지 밀레트(Lizzie G. Millet) 여사로부터 알파벳을 배우기 시작하고, 1883년 1월부터는 요코하마 주재 네델란드 영사관 서기관에게서 영어를 배운다. 이후에도 윤치호의 영어 학습은 계속되어 “푸트 공사를 따라 서울에 머물면서 2년 동안 힘쓴 것은 영문·영어”라고 기록하고 있고(1885/2/14), 중국 유학 시절에도 영어 공부는 계속된다(1886/1/9, 1886/2/4). 결국 미국 유학을 가게 된 이듬해인 1889년 12월부터는 영어로 일기를 쓰기 시작하는 단계에 이른다. 영어로 일기를 쓰는 이유로 그는 첫째, 우리말로 지금의 여러 가지 일을 다 세세히 쓰기 어렵고, 둘째는 백

‘진보’는 일본어의 어형과 어미를 동시에 차용한 것이다. 송민, 「개화기 신생한자어 연구(1)」, 『어문학논총』20, 국민대 어문학연구소, 2001, 66쪽.

17) 유영렬, 『개화기 윤치호 연구』, 고려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1984, 24~25쪽.

사(百事)를 세세히 쓰기 어려운 까닭에 매일 빠뜨리는 일이 많아 일기가 불과 날수와 흐리고 맑음을 기록할 뿐이며, 셋째로 영어로 일기하면 달리 필목을 바꾸지 않고, 넷째 영어를 배우기가 신속한 까닭이라고 적고 있다 (1889/12/7).

윤치호의 영어 일기쓰기는 사망할 때까지 계속 된다. 김상태는 윤치호가 귀국 후에도 영어로 일기를 쓴 이유에 대해 영어 일기쓰기가 이미 습관으로 굳어졌고, 가족 등 주변 사람들로부터 일기의 ‘은밀’함을 유지하기에는 영어로 일기를 쓰는 것이 훨씬 유리했기 때문이라고 추측하고 있다.<sup>18)</sup> 그러나 영어 일기가 습관화되어있다거나, ‘은밀’함 유지라는 기능적인 이유 이외에도 영어 일기쓰기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유를 추측할 수 있다. 조선에서 영어로 일기를 쓰는 일은 조선의 상황을 매번 영어로 번역하는 번거로운 작업을 수반하는 일로, 조선에서의 백사를 오히려 세세히 기록하기 힘들게 만들었을 것이다.<sup>19)</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글이나 한문이 아닌 영어로 일기를 작성했다는 것은 이미 영어가 그의 내면에 상당히 깊숙이 자리 잡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Luce Irigaray는 “만약 우리가 계속 같은 언어로 말한다면, 우리는 동일한 역사를 재생산하게 될 것이다(if we keep on speaking the same language together, we’re going to reproduce the same history.)”<sup>20)</sup> 라고 말하였다. 언어는 표준에 접근하는 기본적인 매체이자, 표준을 재생산해내는 도구이다. 윤치호의 영어일기는 윤치호와 조선과의 심리적인 거리를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18) 김상태, 『윤치호 일기(1916-1943)』, 역사비평사, 2001, 31쪽.

19) 조선에 귀국한 후 윤치호는 인명, 지명과 같은 고유명사는 괄호하고 한자를 병기하고 있다.

20) Hwa Yol Jung, “Enlightenment and the Question of the Other: A Postmodern Audition”, *Human Studies*, Vol. 25, 2002, p. 297.

## 2. 기독교

윤치호는 상해 증서학당에서 유학 중 본넬 교수의 기독교 입교 권유를 받고(1887/3/9), 1887년 4월 3일에 세례를 받음으로서 조선 최초의 남감리교 세례교인이 된다. 그는 세례를 받은 소회를 “이날부터 나는 삼가 교(敎)를 받들고 주(主) 믿을 것을 맹세했으니, 가히 일생에 있어 제일 큰 날이라 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다(1887/4/3). 윤치호의 기독교 개종은 일차적으로 ‘서구적 근대’와 ‘非서구적 前근대’ 사이의 접촉으로 야기된 이질적인 현실 경험에서 파생된 ‘자기 존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이는 그가 경험하게 되는 일상이 더 이상 기존의 전통적 유교 질서에 의해서가 아닌, 서구적인 기준에 의해 규율되고(1892/4/9), 더불어 이러한 사고와 규율의 정도가 ‘문명화의 척도’로까지도 제시된다는 점(1888/9/20)에서 그의 전통적 세계관이 근본부터 바뀌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sup>21)</sup>

윤치호는 기독교 신앙을 개인의 문제로 국한시키지 않고, 조선을 문명화시킬 담보자로 인식하기 시작한다.

까닭에 당금 우리 나라 급무는 국민의 지식 문견을 넓히며, 도덕 신의를 가르치며, 애국심을 기르는 데 있으나, 정부가 그같이 더럽고 썩었으니 무슨 나라를 위하여 장대한 도략이 있겠는가. 우리 나라 교육을 도와주며 인민의 기상을 회복시킬 기개는 예수교 밖에 없으니 내 나라를 위해서나 내 한 몸을 위해서나 성교에 온 몸의 심력을 다 들여, 위로는 구세주의 공덕을 갚고 아래로는 내 영혼 행복을 온전히 하는 것이 대망인 것이다.(1889/3/30)

21) 류계무, 『윤치호와 사회진화론 연구: 애국계몽운동시기(1906-1910)를 중심으로』, 연세대 정치학과 석사학위 논문, 37~44쪽.

하나님의 섭리는 성(聖)과 속(俗)을 통해 모두 내재하는 것으로(1890/3/24), 조선의 운명 역시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 기독교가 세속적 성공에 있어 필수적인가에 대해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개인에게서든, 민족에게서든, 어느 경우의 성공이든지 신앙이 필수적이다. 신앙이 없으면 도덕과 법의 기초가 없다. 도덕과 법이 없으면 사람과 재산의 안전도 없다. 안전이 없으면 인민의 번영도 없다”(1892/11/12)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결국 윤치호에게 기독교는 개인의 성공과, 문명화의 담보자로 조선의 문명화는 결국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만 가능한 일이었다.

### 3. 국제질서의 작동 원리

윤치호는 일기에서 여러 차례 개명, 반개, 야만의 서열화를 하고 있다. 윤치호는 문명과 야만을 ‘인간과 자연과의 거리’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다. “야만은 자연의 노예됨이다. 반쯤 개명된 사람은 자연을 겁먹고 구걸하는 자이며, 개명된 사람은 자연의 주인이다”(1892/12/29).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창세기 2장 28절)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여 자연을 정복한 자는 문명국이 되었고, 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 국가는 야만을 면치 못하는 것이다.

이런 문명과 야만 사이에 존재하는 국제질서의 작동원리는 애초에는 “힘이 정의”였다. 그러나 윤치호는 약소국의 국민으로서 힘이 곧 정의라는 명제를 스스로 받아들일 수 없음을 고민하다가 “힘이 정의”라는 명제를 “정부가 힘”이라고 역전시켜 버린다.

국제적 또는 여러 인종 관계에서 “힘이 정의”인가? 그렇다고 나는 항상 생각해 왔다. 그러나 더 신중히 관찰해 본 후 나는 이에 관한 이전의 나의 견해를 수정한다. 어떤 민족이나 인종을 다른 민족이나 인종이 정복하는데 정복당한 이들이 도덕, 종교, 그리고 지식 면에서 더 나아, 그래서 정복자보다도 정의롭다면 “힘이 정의”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 그러나 우리는 더 강한 인종이 도덕, 종교, 정치에 있어서 더 약한 인종보다 항상 더 우수하고 덜 타락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힘이 정의를 이긴 듯 한 것도 사실은 상대적으로 더 정의롭지 못한 인종을 상대적으로 (나는 절대라고 말하지 않는다) 더 정의로운 인종이 승리했다는 것을 보게 된다. 그래서 결국 여러 인종 사이의 관계에서는 물론 이와 다른 예외가 있겠으나 정의가 힘이다. (1892/11/20) (강조는 필자의 것.)

“힘이 정의”라는 본래의 신념을 “정의가 힘”이라고 역전시키면서 윤치호 역시 스스로 이런 역전된 명제가 국제적 인종 간의 문제에서는 “힘이 정의”라는 점을 유감으로 생각하는 자신의 연약함을 치유해주는 자위책에 불과하다고 한탄한다(1892/10/4). 그러나 만약 힘이 정의라면 약소국 조선 출신인 윤치호는 국제 질서에서 주변화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정의가 힘이라면 상대적으로 더 정의로운 길을 택함으로써 승리의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서구 국가 및 백인종들의 제국주의적 팽창 역시 힘이 세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그들이 피지배자들보다 더 정의롭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힘과 정의 사이의 관계를 역전시킴으로써, 윤치호는 弱肉強食으로 보이는 서구적 국제 질서의 작동 원리를 내면화시킬 수 있게 된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먹는 것이 아니라, 더 정의로운 자가 덜 정의로운 자를 먹는 게임이므로, 스스로 더 정의롭게 된다면 약소국 출신 윤치호 역시 중심부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그는 명제의 역전을 통해 약육강식의 국제 질서

속에서 구원의 가능성을 열었지만, 이는 동시에 약한 국가들을 침탈하는 서구 제국들을 정의로운 존재로 탈바꿈시켜 그들의 팽창을 정당화시켜주는 것이었다.

#### IV. 표준으로부터의 배제

윤치호는 일본(1881. 1~1883. 5), 중국(1885. 초~1888. 10), 미국 유학(1888. 11~1893. 10)을 거치면서 조선을 '타자화'하는 경험을 하였다. 윤치호가 미국 유학을 마치고 증서 학당에서 교사로 일할 시기의 일기에는 이미 아래와 같이 조선인을 그들(they)로 표현하고 있다.

하나의 민족으로 조선인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들을 구성하는 요소들 중에 지켜야 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중국인의 인내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이 일본인들처럼 기사도 정신과 국가적 명예에 의해 활기를 지니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더럽지만 중국인처럼 근면합니까? 아니요! 그들이 과연 게으르더라도 아메리칸 인디언처럼 용감합니까? 아니요! 그들은 단순하더라도 솔직하고 개방적입니까? 아니요! 정리컨데, 그들은 야만인이지만, 야만인의 겁이 없거나 호전적인 정신같은 좋은 자질조차 결여한 야만인입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조선인들이 스스로 개혁하도록 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 내가 일본인이었다면 나는 그 밖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돌보거나 혹은 죽이는 것 외에는!<sup>22)</sup> (번역 및 강조는 필자의 것.)

---

22) 원문은 다음과 같다. "As a nation, the Coreans have no future. *They* have not a single element in *their* make up that is worth saving. Have *they* perseverance of the Chinese? Are *they* animated by the spirit of chivalry and

윤치호가 조선을 ‘they’라고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조선과 자신 사이의 심리적 거리가 그만큼 컸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윤치호는 조선인들에게는 인내심(perseverance), 기사도(chivalry), 민족적 명예(national honor), 부지런함(industrious), 솔직함이나 개방성도 결핍되어 있고, 심지어는 야만인의 무모함이나 호전적인 정신조차 부재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윤치호의 조선에 대한 타자화는 서구인들이 서구 이외의 사람들을 타자하는 방식과 매우 닮아있다. 근대적 표준을 자임하는 유럽인들은 “타자 만들기 위해 자신과 타자를 구분 짓는 특별한 판단 기준으로 ‘결핍’과 ‘부재(不在)’를 사용한 인식론”을 정립했다.<sup>23)</sup> 윤치호 역시 조선인의 ‘결핍’과 ‘부재’를 부각시키면서 자신과 조선을 분리시키고 있다. 서양인들이 동양을 타자화할 때 결핍된 존재로서 타자를 부각시켰는데, 진보하는 서양에 맞서 정체되고 타락한 동양으로 표상했다. 또한 자유, 진보, 문명, 역동성의 서양에 대비되도록 동양을 예속, 정체, 야만, 무기력의 상징으로 묘사하기도 했다. 여기에 인종주의와 성차별도 함께 진행됐는데, 서양을 강건한 남성으로, 동양을 보호받아야 할 여성이나 어린아이로 상정했다.<sup>24)</sup> 윤치호 역시 ‘노란 피부에 하얀 가면’<sup>25)</sup>을 쓰고 조선을 정의롭

---

the sense of national honor as the Japanese? No! Are *they* industrious, if dirty, like the Chinese? No! Are *they* brave, if lazy, like the American Indian? No! Are *they* frank and open, if simple? No! In short *they* are savages without even the better qualities of a savage—such as fearlessness, and war-like spirit. Japan has so far tried to let the Koreans reform themselves. (….) If I were a Japanese I could do nothing else! Care or kill!” (1894/11/1, 필자의 강조)

23) 박지향, 『일그러진 근대』, 푸른역사, 2003, 97쪽.

24) 박지향, 위의 책, 59~60쪽.

25) 탈식민주의의 대표적 저작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란츠 파농의 『검은 피부, 하얀 가면』을 윤치호에게 적용해 보았다. 프란츠 파농, 노서경 옮김, 『검은 피부, 하얀 가면』, 문학동네, 2014.

고 강인한 서양에 대비하여 연약하고 결핍된 존재로 타자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윤치호가 내면화시킨 서구는 그 자체적으로 이미 배타성을 포함하고 있었다. 국민국가와 인종의 개념은 거의 동시에 발생했는데, 민족이나 국민이 근대국민국가 형성과정에서 국가와 민족주의에 의해 형성된 ‘만들어진 전통’이자 ‘상상의 공동체’이듯이, 인종도 국가와 민족주의에 의해 형성된 구성물이다. 인종 개념은 국내적으로는 ‘우리(we)’의 통합을 지향하는 동일성(identity)을 구성해내지만, 국제관계에서는 타자(타인종, 적)와의 차별화를 통한 ‘우리’와 ‘그들’을 구분 짓는 차이(difference)의 문제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sup>26)</sup> 결국 윤치호는 서구를 내면적 표준으로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표준에 의해 배제되어 버리는 모순적인 상황 속에 갇히게 된다. 이러한 아이러니는 서구에 대한 열등감, 서구에 대한 이중감정, 전통에 대한 편견과 자기 분열과 같은 현상을 만들어 낸다.

윤치호의 서구에 대한 열등감은 중국 유학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발견된다. 알렌 선생의 초청으로 저녁 식사를 하러 가서는 “다른 나라 사람이 청하여 대접 받는 것 감사하나, 내 나라 지체가 너무 더러운 고로 다른 나라 사람 모임에 가 부끄럽기 측량없어, 이런 청을 받는 것이 즐거움이 아니라 우환이 되니 불쌍한 일이다. (...) 조선 사람같이 지체 더럽고 천한 자는 없다”(1888/7/10)라고 고백하고 있다. 미국 유학기에도 백인 친구들의 인종주의적 발언에 부끄럽고 비참한 감정을 억제하기 힘들었고(1890/5/4), 자신에게 호의적인 여인의 발언에도 굴욕과 치욕, 경멸과 절망을 절감한다.<sup>27)</sup> 결국 윤치호는 자신의 열등감을 이겨내기 위한 방어기

26) 장인성, 앞의 논문, 115쪽.

27) “바늘방석에 앉은 듯 불편해 하는, 고문당하는 나의 예민한 영혼에게 그녀의 말은 ‘당신이 그곳에 오래 머문들 누가 당신, 조선 사람을 애인으로 삼겠어요!’라고 들린다. 그녀가 이런 뜻으로 말하는지 아닌지 나는 모른다. 그녀가 이미 상처받고 피 흘

제로 “남녀 할 것 없이 모든 이들이 그렇지 않다고 증명할 때까지 나를 싫어하거나 멸시한다고” 생각하기로 하고, 이러한 방법이 “모든 이들이 나를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가정하는 것보다 실망하는 경우가 더 적다”고 기록하고 있다(1892/4/31). 이러한 열등감은 결국 청결에 대한 집착(1885/4/1, 1886/12/8, 1887/6/26, 1892/7/14, 1893/10/17, 1893/11/1), 결벽증적인 성실함(1887/1/4, 1892/4/30, 1892/11/17), 백인 이외의 열등한 종족과 여성에 대한 비하(1887/1/16, 1890/2/14, 1890/10/30, 1893/5/20) 등으로 표출되었다.

또한 서구에 의한 배제는 서구에 대한 이중적 감정을 만들어 내는데, 미국 사람들이 ‘양도할 수 없는 권리(the inalienable right)’나 ‘인간의 자유(Liberty of man)’라는 말을 으스대며 자랑하는데, 이 ‘자유’의 땅(Land of Freedom)에서 이른바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백인이 되어야 함을 통감한다(1890/2/14). 서구 문명에 대한 강한 애정과 내면화에도 불구하고, 백인 이외의 타인종에게는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서양인들의 행태를 보며 윤치호는 깊은 좌절을 경험한다. 결국 미국이 현단계에서 제일 문명화된 국가는 맞지만 문명의 최고 단계는 아니며 현재의 문명화 단계는 언젠가는 전복될 수 있음을 주장하게 된다.

전통에 대한 편견과 자기 분열은 매우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등장한다. 그는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주제가 조선임을 기록하면서, 조선의 지난 역사나, 지금의 현상이나, 그리고 조선의 미래의 가능성 면에서 자신을 열광시키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고백하고 있다(1890/2/7). 조선에 대한 굴욕감과 애정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 동요를 계속하다가 결국은 “애족적이고 인민의 복지에 호의적인 관심을 가진 더 나은 정부를 가지면 다른 나라

---

리는 나의 마음을 이처럼 다시 찢지 않기를 바란다! 내가 만 번이나 감사드려도 부족할 친절을 베푸 여자가 이러한 잔학한 말을 했겠는가!” (1892/3/18)

에 종속되었다 해도 실제로는 재앙”이 아니라는 자포자기의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1889/12/14, 1889/12/28).

## V. 국가주의와 동양주의 사이에서 전환기 지식인의 선택

윤치호의 자포자기의 조선의 개혁에 대한 희망을 완전히 버린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조선에 귀국하기 직전 중국에서 남긴 일기에서 그는 조선에 남은 마지막 개혁의 길을 얘기하고 있다. 왕을 현명하고 애국적인 사람들로 둘러싸인 결단력 있는 성격으로 전환시키거나, 유능한 자국민들이나 외국 세력에 의해 현재의 정부 전체를 전복시키는 것이 그것이었다(1894/7/30). 그가 미국 유학시절 읽었던 시저, 나폴레옹 같은 강력한 군주가 등장하여 현정권을 변화시키거나(1891/4/17), 아니면 자국민 또는 외부 세력에 의한 체제의 전복을 통해 보다 개혁적인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기를 바랐던 것이다. 그러나 윤치호가 할 수 있는 일은 강력한 지도자가 등장할 때 그를 보위하거나, 새로운 변혁의 바람을 불러올 수 있는 애국적인 시민 양성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1895년 조선에 영구 귀국한 윤치호는 애국적 시민의 양성을 위해 독립협회를 통한 민중 정치운동에 몰두하게 된다. 1898년 서재필이 추방되면서 독립협회 회장으로 모임을 주도하게 되지만, 결국 그가 봉착하게 되는 것은 독립협회 회원들의 부패였다. 그에게 있어서 조선 전반에 퍼져있는 부패는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1897/11/2), 그가 마지막으로 희망을 걸었던 독립협회 회원들의 부패는 견딜 수 없는 일이었다(1899/2/1). 결국 윤치호는 1930년대 후반기 적극적인 친일 부역 행위를 하기 전까지 정치적 회색분자로 교계 활동에만 전념하였다.

윤치호는 이미 조선 사회의 부패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내면화한 서구적 기준에서 요구되는 높은 정도의 청렴으로 인해 독립협회 회원들의 부패를 용인할 수가 없었다. 그가 구상한 조선 개혁은 애국적인 시민 양성을 통해서 썩어빠진 사회를 변화시켜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타자화된 조선의 더러움은 윤치호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미국 유학시절 윤치호는 향후 조선이 선택할 수 있는 다섯 가지의 길을 1) 평화적 자기 개혁, 2) 내부 혁명, 3) 현상황의 지속, 4) 중국에 속박되는 것, 5) 영국이나 러시아의 지배라고 정리했다. 이 다섯 가지 길 중 변화된 시대 상황에 따라 윤치호는 영국이나 러시아의 지배 대신 일본의 지배를 선택했다. 그는 스스로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나는 더러운 중국에도, 인종편견과 차별이 지독한 미국에도, 열악한 정부가 있는 한 조선에도 살고 싶지 않다.” (1893/11/1) 그러나 “만일 자기조국을 선택할 수 있다면 나는 일본을 선택할 것이다.”(1905/8/6)

17세부터 31세까지의 외국 유학은 윤치호가 서양의 언어, 종교, 문명관을 습득할 기회였다. 그런 그에게 현재의 비참한 상황에서 조선의 독립은 가능치도 않고 원치도 않는 일이었다(1889/12/28). 윤치호에게 있어 ‘국가주의’는 애초부터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고, “한 민족이 스스로 통치 능력이 없을 때,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더 개화되고 더 강한 인민에게 통치받고, 보호받으며 가르침을 받는 것”이 보다 훌륭한 선택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이 부강에 이를 때까지 일본과 조선의 이해 공통의 공고케 함을 위하여 양국을 결합한다는 ‘을사보호조약’의 전문(前文)<sup>28)</sup>은 윤치호에게 거부할 수 없는 선택이었는지도 모른다.

28) “日本國政府及韓國政府는 兩帝國을 結合하는 利害共通의 主義를 鞏固케 함을 欲하여 韓國의 富強之實을 認할 時에 至기까지 此目的으로써 左開條款을 約定함.” <1905년 11월 17일 을사조약 원문>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0868628>)

서구적인 표준을 내면화시킨 윤치호에게는 조선을 객관화시켜 그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해낼 능력은 있었지만, 애정의 눈빛으로 조선을 변화시킬 힘은 부족하였다. 이는 1906년 러일전쟁 시기에 소련을 위해 군사 스파이 노릇을 하였다는 명목으로 목이 잘리는 동포들을 무감각한 표정으로 바라보는 중국 일반 민중들을 대하는 루쉰(魯迅)의 태도와 묘한 대조를 보인다.

한번은, 화면상에서 오래전 헤어진 중국인 군상을 모처럼 상면하게 되었다. 한 사람이 가운데 묶여 있고 무수한 사람들이 주변에 서있었다. 하나같이 건장한 체격이었지만 몽매한 기색이 역력했다. 해설에 의하면 묶여 있는 사람은 아라사(러시아)를 위해 군사기밀을 정탐한 자로, 일본군이 본보기 삼아 목을 칠 참이라고 했다. 구름같이 에워싸고 있는 자들은 이를 구경하기 위해 모인 구경꾼이었다.

그 학년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나는 도쿄로 왔다. 이 일이 있는 후로 의학은 하등 중요한 게 아니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어리석고 겁약한 국민은 체격이 아무리 건장하고 우람한들 조리돌림의 재료나 구경꾼이 될 뿐이었다. 병으로 죽어 가는 인간이 많다 해도 그런 것쯤은 불행이라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저들의 정신을 뜯어고치는 일이었다. 그리고 정신을 제대로 뜯어고치는 데는, 당시 생각으로, 당연히 문예를 들어야 했다.<sup>29)</sup>

루쉰은 러일전쟁 당시 일본에서 의학 공부를 하던 중 일본군이 선전물로 만든 환등기 영상을 통해 오랜만에 중국인들을 만나게 된다. 환등기 속의 중국인들은 건장한 체격임에도 무감각한(麻木) 모습이었다. 몽매한 중

29) 루쉰, 「서문(自序)」, 『루쉰전집 제2권 외침, 방향』(루쉰전집번역위원회 옮김), 그리비, 2010, 23쪽.

국 동포들을 보며 루선은 몸을 고치는 의사가 되기보다는 “정신을 뜯어 고치는” 의사가 되기 위해 문예 운동으로 전향한다. 윤치호와 루선 간의 이러한 차이점은, 윤치호에게 조선인은 ‘우리(we)’가 아닌 ‘그들(they)’이었지만, 루선에게 중국인은 노예근성에 젖어있을지언정 ‘우리(we)’였기에 가능하였다. 중국인의 노예근성에 ‘반항정신’을 불어넣으려고 했던 루선은 서구의 근대적 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그 다음으로 따져보면 또한 상공업 및 입헌국회 이론이 있다. (...) 이런 인 사들의 요란한 주장은 (서구) 근대 문명을 근거로 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들은 자기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문명을 모르는) 야만인으로 몰아붙인다. (...) 그러나 저들이 말하는 (서구)문명이 바로 (...) 중국에 옮겨 심어야 할 (진정한) 문명인지 모르겠다. 아니면 전통의 문물제도를 모두 내다버리고 다만 서양문화만을 변호해야만 하는가? 물질주의와 민주주의는, 19세기 말엽의 (유럽) 문명의 일단이 있다고 하겠으나, 나는 (그것을 그대로 중국에 받아들이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sup>30)</sup>

서구적 표준을 내면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서구 문명의 인종주의적 배타성에 좌절한 윤치호는 조선의 독립을 주장하는 국가주의보다는 일본에 의해 주도된 동양주의로 경사되었다. 철저하게 서구적 표준을 내면화하였지만, 다시 서구인들로부터 배제되는 상황에서, 근대적 요소가 부재한 결핍된 조선보다는 탈아입구(脫亞入歐)라는 구호를 앞서워 서구적 근대화를 추구했던 일본 주도의 동양주의에 동조하는 것은 그에게는 필연적 선택이었다. 이에 반해 루선은 환등기에서 갑작스럽게 등장한 몽매한 중국인들

30) 루선, 「문화편향론(文化偏至論)」, 번역은 필자의 것임. 「문화편향론(文化偏至論)」 전체에 대한 국문 번역은 「문화편향론」, 『루선 전집 제1권 무덤, 열풍』(루선전집번역위원회 옮김), 그린비, 2010, 79~10쪽을 참조할 것.

을 그와 상관없는 타자로 보기보다, 우매하고 몽매할지언정 “오래 전 헤어진” 동포로 인식하였다. 그리하여 루쉰은 몽매한 그들을 각성시키고자 의학을 버리고 문학으로 전향하였다.

## VI. 결론

본 논문은 청년기 윤치호의 일기를 중심으로, 그가 언어, 종교와 같은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조선의 운명과 같은 국가 차원에서 서구적 표준과 질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추적했다. 20대 중반 시작된 그의 영어 일기 쓰기는 그가 사망할 때가 지속되었다. 스스로의 가장 내밀한 기록인 일기쓰기를 영어로 지속하면서 그는 서구적 근대와 부합하는 자아를 수립하고, 자신의 조국이었던 조선인민들과 심리적 거리를 유지했다. 또한 기독교 신앙을 개인의 구원과 국가의 부흥까지도 관장하는 문명화의 담보자로 인식하면서, 서구 기독교적 세계관을 통해 국제질서를 조망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가 미국 유학을 통해 직접 경험한 서구 사회는 서구 문명에 대한 친소여부와 관계없이 인종주의에 근거한 배제의 논리로 작동되는 사회였다. 스스로 내면화한 서구에서 배제된 윤치호는 결국 인종에 근거하여 자신을 배제하지 않지만 동시에 서구적 근대를 추구하는 일본 주도의 ‘동양주의’를 지지할 수밖에 없었다. 인종주의적 근거로 서구로부터 배제된 근대적 지식인 윤치호는 결국 동양주의로 대표되는 일본 주도의 대동아공영권을 적극 지지하게 된다.

본 연구는 청년기 윤치호가 기록했던 일기를 통해 그가 서구 문명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재구성해보았다. 청년기에 형성된 그의 세계관은 이후 그의 친일 행보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선진 문명 세계에 대한 그

의 양가적 대응은 장년기에 들어서도 여전한데, 한일합방 이후 일본의 조선에 대한 무단 통치가 극에 달한 1919년에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긴다. “관립학교의 일본인 교사들은—여학교도 예외없이—의무적으로 긴 칼을 차고 다닌다. 군국주의가 미친 게 아닌가?”라며 군국주의를 비판하지만 (1919/2/7), 3·1운동과 같은 “어리석은 소요로 말미암아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조선인들을 더더욱 가혹하게 다룰 수 있는 좋은 구실을 얻게 될까봐 두렵다”며 독립운동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1919/2/26). 윤치호는 서구적 문명 표준으로터 인종주의적인 이유로 배제되었을 때도 서구적 질서에 대한 전복을 꿈꾸기보다 일본이라는 대안을 선택했다. 군국주의를 통한 일본의 무단통치가 조선의 여학생들에게 가차없이 칼을 들이대는 상황에서, 그는 일본에 대한 독립 운동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는 독립 운동이 오히려 피보호의 대상인 조선인들을 더욱 가혹한 상황으로 몰아갈 것을 염려하며 일본의 통치를 역으로 두둔하고 있다. 윤치호의 ‘양가적 저항’은 그가 세상을 인식하는 준거점이 조선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서구가 주장하는 보편적 표준에 있었던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2022.03.11. 투고 / 2022.04.04. 심사완료 / 2022.04.08. 게재확정)

[Abstract]

**Internalized, but Unapproachable Western:**  
Reading Yun Ch'i-ho's Perception towards the West during His  
Adolescence Period through His Diary

Kim, Yongshin

This paper attempts to trace why Yun Ch'i-ho, an intellectual in the transition period when state-centered "nationalism" and race-centered "orientalism" competed, had no choice but to return to "orientalism." To this end, this study mainly analyzes Yun Ch'i-ho's diary before he returned to Chosun permanently in 1895. This period was when Yun Ch'i-ho was 17 to 31 years old, which is essential in establishing one's own values and worldviews. Furthermore, by examining with what criteria Yun Ch'i-ho perceived the West and the world before his full-fledged activities in Korea, we will trace the intrinsic causes of Yun Ch'i-ho's affection for Japanese-led "orientalism" instead of "nationalism." The West, which was claimed to be universality rather than specificity, was the reference point for Yun Ch'i-ho's world perception. However, the exclusivity inherent in Western modernity did not allow him to access it thoroughly, so he had no choice but to choose "orientalism" as an alternative to the West.

□ Keyword

Yun Ch'i-ho, diary, nationalism, Pan-Asianism, the West

[참고문헌]

- 김상태, 『윤치호 일기(1916-1943)』, 역사비평사, 2001.
- 김용신, 「臺灣 주권 문제의 역사적 기원」, 『中國學報』 91, 2020.
- 디페시 차크라바르티, 『유럽을 지방화하기』, 그린비, 2014.
- 로절린드 C. 모리스, 가야트리 차크라보르티 스피박, 파르타 차테르지, 리투 비를라, 드루실라 코넬, 라제스와리 순데르 라잔, 압둘 R. 잔모하메드, 미셸 바렛, 팽 치아, 진 프랑코 지음, 태혜숙 역,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 서발턴 개념의 역사에 관한 성찰들』, 그린비, 2013.
- 루신, 『루신 전집 제1권 무덤, 열풍』(루신전집번역위원회 옮김), 그린비, 2010.
- 루신, 『루신전집 제2권 외침, 방황』(루신전집번역위원회 옮김), 그린비, 2010.
- 류계무, 『윤치호와 사회진화론 연구: 애국계몽운동 시기(1906-1910)를 중심으로』, 연세대 정치학과 대학원 석사논문, 2004.
- 박지향, 『일그러진 근대』, 푸른역사, 2003.
- 송민, 「개화기 신성한자어 연구(1)」, 『어문학논총』 제20집, 국민대 어문학연구소, 2001.
- 신재호, 「동양주의에 대한 비평」, 『동아시아인의 '동양' 인식: 19-20세기』 (최원식, 백영서 엮음), 문학과지성사, 1997.
- 유영렬, 『개화기 윤치호 연구』, 고려대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1984.
- 윤치호, 송병기역, 『국역 윤치호 일기 1』, 연세대 출판부, 2004.
- 윤치호, 송병기역, 『국역 윤치호 일기 2』, 연세대 출판부, 2005.
- 윤치호, 국사편찬위원회, 『韓國史料叢書第十九 尹致昊日記 三~五』, 국사편찬위원회, 1975.
- 장인성, 「'인종'과 '민족'의 사이: 동아시아연대론의 지역적 정체성과 '인종」,

- 『국제정치논총』, 제40집 4호, 한국국제정치학회, 2000.
- 프란츠 파농, 노서경 옮김, 『검은 피부, 하얀 가면』, 문학동네, 2014.
- 헨리 키신저, 『헨리 키신저의 세계 질서』, 민음사, 2016.
- Jackson, Robert, “Sovereignty in world politics: a glance at the conceptual and historical landscape,” *Political Studies* Vol. 47, No. 3, 1999.
- Jung, Hwa Yol, “Enlightenment and the Question of the Other: A Postmodern Audition”, *Human Studies*, Vol. 25, 2002.
- Krishna, Sankaran, “China is China, Not the Non-West: David Kang, Eurocentrism, and Global Politics”,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Vol. 77, No. 1, 2017.
- Morris, Christopher, *An Essay on the Modern Stat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 Orwell, George, *Shooting an Elephant*, <https://www.orwellfoundation.com/the-orwell-foundation/orwell/essays-and-other-works/shooting-an-elephant/>
- Rockhill, William Woodville. *China's Intercourse with Korea: From the XVth Century to 1895*, Paragon Book Reprint Corp., 1970.